

'바비' 지나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풍 또 온다... '마이삭' 복상중

제주기상청 "내달 2일 오후 8시 제주에 가장 근접" 강도 '매우 강' 중형급 태풍 일주일 사이 두번 통과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강도 '매우 강'의 태풍이 일주일 만에 다시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250km 해상에서 시간당 29km 속도로 동진하고 있다.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 965 헥토파스칼(hPa)에,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37m, 강풍반경 330km에 이르는 강도 '강'의 중형 태풍이다.

태풍 마이삭은 필리핀 고수온 해역을 지나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마이삭은 31일 오후 3시쯤 중심기압 940헥토파스(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47m의 강도 '매우 강'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태풍 마이삭은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9월 1일부터 제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9월 2일 오후 8시 제주 남동쪽 130km 해상까지 진출하며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무렵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45m, 강풍 반경은 350k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으로 분류하는데 초속 25~33m는 '중', 33~44m는 '강', 44~54m는 '매우 강', 54m 이상이면 '초강력'으로 나뉜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는 초속 44~54m의 바람은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고,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지닌다.

2000년대 들어 강도 '매우 강'의 태풍이 제주에 상륙한 것은 지난 26~27일 제주에 영향을 준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예측

된다. 2000년대 무렵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루사'와 최대 순간풍속 역대 1위(10분 평균 관측치)를 기록했던 태풍 '솔릭'의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각각 초속 33m와 40m로 둘다 강도 '강'의 태풍이었다. 강도 '매우 강'의 태풍 바비가 제주에 영향을 줄 당시 도내 곳곳에서 가로수가 뺏기고, 교통 신호등이 파손됐으며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는 등 220여건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 동쪽에서 확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제주를 지나가면서 제주에 분 강풍이 역대급 수준은 아니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정면으로 관통해 지날 가능성은 적고, 제주 동쪽 해상으로 치우쳐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주의깊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양배추 모종 심는 농민 무더운 날씨를 보인 30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정·안덕·남원지역 초·중·고 '등교중지'

도교육청, 대책회의서 결정 내달 4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소재 학교들에 대해 '등교중지'를 결정했다.

회의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안덕, 대정, 남원지역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등교가 아닌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다. 이 지역 학교 현황을 보

면 총 40개교로, 남원이 16개교(유 7·초 7·중 2), 안덕 10개교(유 4·초 5·중 1), 대정 14개교(유 5·초 5·중 2·고 2) 등이다.

원격수업 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교직원 역시 이 기간 재택근무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된 2학기 학사 일정인 >초·중학교 학생 1/3 등교수업 >고등학교 학생 2/3 등교수업(고3은 매일 등교 원격)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 등은 9월 11일까지 그대로 시행하되,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에 소재한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강제가 아닌 '권고' 조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는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은 지난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서별 2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부석중 해군총장 오늘 강정마을 방문

마을회관서 주민들과 대화

제주 출신 부석중 해군 참모총장이 3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다.

부 총장은 이날 강정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부 총장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전할 지 주목된다.

강정마을회는 최근 공고문을 통해 부 총장의 방문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석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차 이뤄지고 있다.

부 총장은 지난 5월에도 강정마을을 방문해 임기 내 최대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 참모총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한동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해군에 임관했다. 지난 2017년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함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맡아오다 지난 4월 해군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건군 이래 제주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선홀리 이장 해임 요구 농성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제주 시 조천읍 선홀리 일부 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지역상생협약을 맺은 이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조천읍장실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이장 해임절차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집회 모임이 금지됐는데도 마을총회를 열어 주민들이 해임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천읍의 통보

는 기만적이라며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조천읍장실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이날 농성은 조천읍이 9월 1일까지 이장 해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겠다며 약속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조천읍은 지난 11일 선홀리 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 이장·동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홀리 이장에 대한 해임 건을 사전 통지하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2021년 시행 재직자 및 취업희망자 대상 교육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2020년 제주지역 훈련 수요·공급조사' 시행안내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도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구인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목적

- 지역 산업계의 인력 니즈파악 및 2021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 기업과 수요자의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사기간

- 2020년 8월 ~ 10월(3개월간)

조사대상

- 상시 종사자수 5인 이상 제주지역 기업체(1,000여개 업체)

주요 조사내용

- 기술·부서별 인력 및 필요채용 현황
- 취업예정자 및 재직자 훈련 수요 파악


조사방법

- 사업체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기업체 대표, 인사담당, 기술부장 등)

조사결과

- 2021년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무상지원)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EL. 757-2164 FAX. 757-2168 | 홈페이지. http://jejuhrd.or.kr